

소장기록물 정리·기술 체계 개선과 기술정보 활용

박지영(한성대학교 인문대학)

□ As-Is: 국가기록원 정리·기술 체계

- ICA의 ISDA(G) 및 ISAAFR(CPF)를 적용한 공공표준 및 원내표준 제정 및 적용 → ISDF 미반영으로 기능분석 및 기능분류관련 지침의 부재. 기능시소러스가 실제로 '기능시소러스'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- 기술표준의 개선은 미흡한데, 기록물의 생산 환경이나 기록의 유형 및 매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→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이 기록관리업무의 주요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있음(이론과 현실의 차이)

□ To-Be: 다중개체 기반 기술체계

- 개선을 위한 논의들에 나타난 키워드: 다중개체, 기능어/주제어. 주제별 리서치 가이드, 전거레코드, 기능시소러스 등 → 테스트베드 구축과 공개 -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 과정 필요

□ 논의: 기록의 지적인 통제와 이용자 경험의 설계

- 기록의 지적인 통제 → 지식(Science)과 기술(Arts)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
- 이용자 경험의 설계 → 기록물의 지적구조를 공간(Archival Universe)에 넣어 보면, 그 안에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경험을 과정별로 모델링할 수 있음